

## 광복 100주년(2045년)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,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예산재정으로 뒷받침

-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→ '26년 위원회의 중점 정책과제 논의
- 광복 100주년(2045년)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논의
-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, 일반국민, 이해관계자, 민간 전문가 등 범국가적 역량 결집  
→ 타운홀 미팅, 간담회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전략에 반영

기획예산처(장관 박홍근)는 4.22일(수) 11:00,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. 박홍근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장기 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, 권오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. 금일 회의에서는 ①광복 100주년(2045년)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방향, ②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선정한 중장기 정책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.

### 【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】

- (개요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- (구성) 권오현 위원장(前 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0명
- (분과) ①혁신성장반(AI, 바이오, 문화 등 주요산업 및 경제 등), ②미래사회전략반(인구, 교육, 복지, 노동, 기후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(정부혁신, 규제개혁, 지역발전 등)

박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최근 대한민국이 AI 대전환, 저성장, 기후 위기, 지방 소멸 등 복합·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,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명확한 방향,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. 또한, 박 장관은 과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「비전 2030」('06년)은 아동수당, 근로장려금(EITC) 등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으나, 수립 시기 및 재정 투자계획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.

이에, 박 장관은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으로 향후 20~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밝혔고, 금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논의가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.

이와 함께, 박 장관은 금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기존 중장기 계획들과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- ①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권자인 일반 국민(특히, 2045년의 주역이 될 청년과 미래 세대)이 직접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국가 미래 청사진이다.

청년 및 일반 국민, 이해관계자, 시민단체,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전략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, 국회(입법부), 연구기관(경인사연 등), 각계 원로 자문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특정 부처의 전략이 아닌 ‘대한민국의 전략’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이러한 취지에 따라,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말,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직접 당사자가 될 30~40대 젊은 박사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.

- ②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들은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한다.

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실행력을 갖는 ‘살아있는 전략’으로서, 말뿐인 계획이 아닌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구현하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.

권오현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, 그간 매주 분과회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. 특히, 최근 중동 전쟁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, 공급망 등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, 나아가, AI,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스템, 인재,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또한,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**현 제도**가 과거 산업화 시기 **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까지는 유효했으나**, 향후 **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**고 지적하며, 정부의 **적극적인 규제 개혁** 노력을 당부하였다.

이어서,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**인적 자본이 부족하다**는 점을 지적하고, **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종합 대책**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**전담 조직**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**기획예산처가 중추적인 역할**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 해결을 위한 **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필요성**에 공감대를 형성하고, **AI 전환에 따른 경제·사회 변화, 청년, 교육, 일자리, 기후 위기**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**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**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다. 또한, 위원들은 **중장기 전략위원회가 국가 전략 논의와 자문을 위한 핵심 플랫폼**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끝으로, 박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중장기전략위원들이 향후 **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자문**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, **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논의 중인 정책과제\***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등은 추후 **중장기 국가발전전략**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.

\* (예) AI·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발굴·육성, 에너지·공급망·사이버 안보 등 미래 리스크 대응, AI 전환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, 지방의 자생적 성장체계 구축, 탄소배출 감축동력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등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미래전략기획실<br>미래전략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철건 (044-214-1610)  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승환 (niceguystar@korea.kr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어우주 (hidwn@korea.kr)       |



# 참 고

##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요 및 구성

### 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**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**(2012년~)
- (구성) **권오현 위원장**(前 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 **총 20명**
- (분과) ①**혁신성장반**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**미래사회전략반**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**거버넌스개혁반**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**3개 분과**

위원장



**권오현**  
前 삼성전자 회장

| 혁신성장반(8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래사회전략반(6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거버넌스개혁반(5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<b>이정동</b> (분과장)<br>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|            | <b>계봉오</b> (분과장)<br>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|            | <b>차미숙</b> (분과장)<br>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|
|          | <b>구자현</b> (간사)<br>KDI 선임연구위원      |            | <b>김하연</b> (간사)<br>나눔비타민 대표     |            | <b>문병걸</b> (간사)<br>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 |
|          | <b>김미현</b><br>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  |            | <b>김기선</b><br>충남대 법전원 교수        |            | <b>고성규</b><br>현대차그룹 고문           |
|          | <b>윤성로</b><br>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     |            | <b>김재승</b><br>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|            | <b>문소영</b><br>서울신문 대기자           |
|          | <b>이장혁</b><br>고려대 경영대 교수           |            | <b>인소영</b><br>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 |            | <b>차경진</b><br>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      |
|          | <b>장병규</b><br>크라프트톤 이사회 의장         |            | <b>황준성</b><br>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<b>최윤희</b><br>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<b>황경민</b><br>(주)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